

# 오동도 현행대로 여수시가 관리

지방분권委, 환경부 관리권 환수 백지화

환경부가 환율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던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에 대한 관리권을 현행대로 여수시가 갖게 됐다.

여수시는 “오동도에 대한 여수시의 관리권을 환수하려던 정부가 이를 백지화함에 따라 시가 오동도를 계속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 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재심의 논의에서 제주와 여수시의 의견을 존중해 국립공원 한라산과 오동도 지역에 대한 관리권을 현행대로 해당 자체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가 단일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90%가 여수시 소유이며, 세계박람회

핵심지역으로 박람회후 박람회장과 연계 관리 문제 등을 의결사유로 꼽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촉진위 결정이 환경부를 통해 공식 통보해야 하는데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다”며 “절차적 과정만 남아있을 뿐 관리권 유지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에 대한 국가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여수시가 갖고 있던 오동도에 대한 관리권을 환수하여 했으나 여수시민 및 시와 의회 등은 한목소리로 “오동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기·종점으로 지난 68년부터 40년 이상 여수시가 관리해왔고 여수의 자랑이었다”며 “지역민의 밥발감,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의 차이, 박람회 성공 유치 등 모든 것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현행대로 국립공원을 존치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여수 8경’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오동도는 0.12km 면적의 작은

섬이지만 섬의 명물인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193종의 허颓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으며 1968년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가공·판매 일괄 시스템

### 담양 수북면 나산리에

### 쌀 가공공장 들어섰다

친환경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판매를 연계한 시스템을 갖춘 가공공장이 담양 수북면 나산리에 들어섰다.

29일 담양군에 따르면 소비자의 웨빙 수요를 만족시키는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친환경 쌀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친환경 유기농산물 쌀 가공공장’을 지난 28일 준공했다.

쌀 가공공장은 국비와 군비 2억원을 들여 원료정선, 현미가공, 백미가공 등 도장시설과 색채선별, 포장출하, 집진 설비 등 가공·소포장 시설을 갖췄다.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쌀 가공공장 준공으로 향후 생산·가공·판매는 물론 관광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으로 글로벌하는 농산물 소비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생평식품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을 경지면적의 45%까지 확대하는 등 고품질 쌀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 식량작물 부가가치 향상 평가회

전남도농업기술원 28~29일 이틀간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과 시범사업 단지 농업인 대표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량작물 부가가치 향상 종합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했던 주요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굴·발전시키는 한편 도출된

〈전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 신종 ‘보이스피싱’ 신속 대응 막아 강진경찰 1200만원 회수

강진경찰이 카드론 대출금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민피해를 예방했다.

29일 강진경찰에 따르면 강진읍 김모(54·여)씨는 농협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다시 사기범은 경찰청이라고 하면서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여러 가지 금융정보를 요구했다.

김씨는 사기범의 요구대로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난후에야 이상하다고 생각해 강진경찰을 찾았다.

이에 수사과와 지능팀 점봉기 경사는 김씨가 소지한 카드사에 연락한 결과 ‘카드론 대출’이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카드론이 이체된 김씨 통장의 지급을 일단 경찰서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킨 후, 금융기관까지 동행해 이체될 뻔 했던 1200만원을 모두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정봉기 경사는 “기존 방법은 너무 많이 알려져 새로운 수법을 사용했다”며 “계좌번호나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면 일단 경찰서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 토지 금 매

###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평당 15만원

###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 광주에서 8분거리

## 공동 중개 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상표등록 : 41-0163369호 ·

핸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 사거리)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 건 물(매매)

- 토지 600평건물 4,000평(매가 210억)
- 보증금 100억/월 세 5,000만원
- 토지 60평 건물 100평(매가 110억) 보증금 40억/월 세 3,000만원
- 토지 200평 건물 725평(매가 39억) 보증금 70억/월 세 1,700만원
- 토지 164평 건물 600평(매가 203억) 보증금 6억/월 세 1,700만원

■ 토지 60평 건물 600평(매가 203억) 보증금 6억/월 세 1,700만원

#### 토 지 (매매, 상무지구)

-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49평(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동가능(상당수영업중)
- 833평(25평)-평당 1,300만원 (상무지구)(변경기사거리를) ■ 1,380평(600평)-평당 1,200만원 (상무지구)(유동가능)
- 3,400평(1,000평) 평당 750만원 월세(시청앞) (회사사옥, 오피스텔 등 적합)
- 동립동(생산녹지 유품~하남 간대로변) 4,470㎡(약 1,352평) - 평당 330만원 (예상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으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어떤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33-5221) 헌 011-602-2522 (광주동행 낸트월드 대인동 소방서간판)

### 대인동삼일부동산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아파트/빌라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신월IC 교통광장 접コーナ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전남곡성 재활용 공장(PP.PE수출) 급매

- ▶ 대지 : 2,000평 / 건물 500평
- ▶ 영업권 및 자산 일체 (현재 흑자 영업중)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 ▶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
- ▶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800평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 복구 동립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 8.9, 10.9m
- ▶ 호아스트 : 유, 유, 유
- ▶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 조합장 자리 지키기·지역 이기주의 발목

## 영암지역 회원농협 합병 담보

### 지역농협 10곳 대부분 회원수 1500명 미만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암지역 회원농협간 합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조합장 직선제와 지역 이기주의 등에 얹혀 담보상태에 놓여있다.

현재 영암지역에는 10개의 지역농협이 있다. 이 가운데 조합원수가 1500명 미만인 곳은 덕진농협·금정농협·도포농협·군서농협·학산농협·미암농협 등 6개에 달하며, 총자산 규모도 제2금융권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보다 적은 600억 미만에 불과한 상태이다.

그동안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2003년 농협중앙회가 부실 회원농협 병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호농협·밀양농협·여수농협·제주농협 등 4곳을 통합해 한 회관으로 운영되는 ‘여수농협’을 출범했다.

양 농협이 자율 합병할 경우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당 50억원의 합병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조합장 직선으로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나머

일정부분 무이자 자금으로 지원받는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협 합병이 담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조합장들의 이기주의와 회원농협들이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농협 한 관계자는 “조합원 1500명만 조합, 70세이상 조합원 구성비 30% 이상이나 평균 예수금평잔의 70%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운 소규모 조합 등은 정상적인 농산물 판로개척이나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것을 조합장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권역별로 자율 합병을 추진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협 기능의 극대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보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부취재본부=문병선 moon@

도 신혼여행을 떠난다.

LG화학 ‘글로벌넷워크’ 박준규 회장은 “몇해 전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다녀오면서 이주여성들이 친지 없이 외롭게 결혼식을 올리는 사설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이주여성들이 고향 부모를 모시고 화족을 밝힐 수 있도록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이 다문화복지원에 기증한 여전농협 특산품 ‘제복선에 실린 쌀’(20kg 40포)은 이주여성의 점심식사로 사용될 예정이다.

/충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LG화학 여수공장 동호회 후원

### 이주여성 고향 부모님 초청 행사

여수시 다문화복지원(원장 최문정)과 LG화학 여수공장(주재임원 안태성 전무)이 ‘여수지역 결혼 이주여성 고향 부모님 초청행사’를 연다.

LG화학 여수공장동호회 ‘글로벌 네트워크’ 후원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이주여성 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청탁지며, 양가 부모를 동반한 여수·순천지역 시티투어·결혼식·신혼여행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div